

第17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閉會中)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2年10月26日(月)午後4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第18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審査의件
2. 1992年第2回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審査를 위한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審査된案件

1. 第18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審査의件(委員長提議) 1面
2. 1992年第2回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審査를 위한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委員長提議) 6面

(16時10分 開議)

○議事係長 林洛吉 座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第17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 會議가 開議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를 하겠습니다.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 대한 敬禮)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炯九 運營委員會 委員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公私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늘 會議에 參席해 주신 委員여러분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委員님들 중 많은 분들이 海外研修를 다녀오신다고 勞苦가 많으셨고 아직 餘毒이 풀리지 않으셨을텐데 이렇게 參席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어느덧 우리 議會 議事堂앞에 은행나무잎이 노랗게 물들어 하나 둘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산과 들에는 五穀百果과 무르익어 豐饒로운 結實을 거두어 들이는 農夫들의 바쁜 손길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진 듯 합니다.

풀뿌리 民主主義라는 우리 地方議會가 한 걸음 成熟하고 보다 發展의인 議政活動을 통해서 진정한 區民의 福利와 公益增進을

위함은 물론 最善을 다하는 城北區議會가 될 수 있도록 研究, 努力하는 先導的 役割을 우리는 우리 運營委員會가 主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想起하고자 합니다.

오늘 本會議에서 審査할 案件은 配付해드린 議事日程表와 같이 第18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議事日程 審査의 件과 城北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充分한 論議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고 보다 效率的인 會議가 進行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들 적극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3분 委員님이 參席하셔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閉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第18回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審査의件(委員長提議)

(16時13分)

○委員長 金炯九 議事日程 第1項 第18回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臨時會 議事日程審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第18回 臨時會議는 論議할 案件을 參考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日 城北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1992年度 第2回 一般會計

歳入歳出 追加更正豫算案 議決의件과 서울特別市 城北區 物品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의 議決의件, 서울特別市 城北區 駐車場特別會計 設置條例案 議決의件 및 黃鎬山議員外 17人이 發議한 서울特別市 城北區 行政情報公開條例案 議決의件이 되겠습니다.

이번 第18回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臨時會議은 지난 20日 城北區廳長으로부터 集會要求가 있었으므로 開會日時는 地方自治法 第39條 규정에 따라 10月27日 즉, 내일 오전 10時에 開議하기로 이미 公告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運營委員會에서는 이번 會期를 各 委員會 및 豫算特別委員會 日程을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4日間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意見 없습니다」하는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異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趙基燦委員님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우리 運營委員會의 節次도 거치지 않고 19回 臨時會議 日程이 이미 公告가 되고 召集을 했는데 運營委員會에서 이런 日程을 잡고 이런 會議를 거친 다음에 公告가 되고 召集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요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臨時會議가 召集公告가 되었습니다.

모든 會議規則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規約이 있고 順序가 있는 것인데 運營委員會 委員들도 모르는 사이에 本會議 召集公告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 과연 이런 責任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運營委員들이 나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召集을 運營委員會 委員長이 거치지 않고 議長이 직접 하셨는데 그 사연을 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炯九 예, 그 날짜를 27日로 정한 것은 議長님하고 相議는 일단 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運營委員會를 開議해가지고 決定을 이어가지고 하면 또 公告도 붙여가지고 하

면 時間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議長님이 그렇게 하셔도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事前에 27日날 公開를 하시고 우리가 運營委員會를 20日날 해서 거기서 決定을 해서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決定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理解하시기 바랍니다.

○趙基燦委員 理解는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촉박했느냐 이 말입니다. 運營委員會가 時日이 充分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外國 研修갔다 온지도 이미 10日이 지났고 充分히 運營委員會를 열 수 있는 時間과 條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運營委員會를 안열고 간략히 생략을 해가지고 委員長과 議長이 職權으로 요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問題가 있지 않느냐는 애깁니다.

○委員長 金炯九 그래서 우리가 오늘 運營委員會를 召集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단 報告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趙基燦委員님이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宗泳委員 趙基燦委員님의 要旨는 規定이 있으면 規定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것 같고요,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事務局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通例로 할 수 있는가 하는 規定에 대해서 좀 說明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金榮植委員 發言 있습니다.

規定이 있다 하더라도 充分히 우리 海外에 갔다와서 時間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그것을 생략을 하고 벌써 公告를 붙였고 하는 것은 違法입니다.

議長이 했다 하더라도 運營委員長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 運營委員會 召集할 필요가 없죠. 사후추인 받을려면.

제 생각같아서는 充分히 時間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海外에 가서 없다든지 充分한 그런 理由가 있어야지 저는 그런 理由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充分히 우리가 19日날, 이게 22日날 公告가 붙었는데요, 召集을 했는데 19日 놔두고, 20日날도 있었습니다.

運營委員會 召集해서 公告를 붙이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炯九 그러면 우리 林洛吉係長님께서 補充說明을 좀 해드리겠습니까.

○議事係長 林洛吉 예, 議事係長이 補充說明을 좀 드리겠습니다.

金榮植委員님이나 趙基燦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당연히 妥當하신 말씀으로 認定을 합니다.

다만, 地方自治法 第39條2項에는 地方自治團體長이나 在籍議員 1/3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15日 以內에 臨時會를 반드시 召集하도록 그렇게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序頭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月20日字로 城北區廳長으로부터 召集要求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日날 저희가 召集要求를 받아가지고 議長님께 報告해서 運營委員會를 召集해서 公告節次를 거쳐서 臨時會를 召集하려면 20日부터 계산하면 11月4일이 滿期일이 됩니다.

그래서 時間이 촉박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地方自治法 39條2項의 規定에 의한 15日 以內라는 規定을 지킬려고 하다보니까 事전에 運營委員會에 回附를 하지 못하고 아마 議長님의 職權으로 臨時會 날짜를 決定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事項이 節次上의 하자는 어찌나, 하는 問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部分은 저희는 이렇게 判斷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團體長의 要求에 응하지 않고 議員님들이 스스로 臨時會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判斷이 되어서 臨時會가 召集되는 경우에는 事전에 반드시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서 날짜도 잡고 議事日程도 논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고요, 다만 團體長이 臨時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부득이 그러한 節次를 거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時日이 촉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委員님들께 諒解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두 분 委員님 理解하시죠?

○金榮植委員 그런데 이날 우리 무슨 會議가 있어서 參席 못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多數가 參席 못해도...

○委員長 金炯九 27日서부터...

○金榮植委員 예. 그렇게 할려면 할 수 없죠. 하더라도.

○幹事 申晉玉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委員長님이나 林係長님이 다 말씀하시고 또 지금 趙委員님이나 金榮植委員님의 意見을 充分히 尊重하는 뜻에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議事日程案입니다.

確定된 것이 아니고 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이 또 現在 意見이 收斂이 되어서 이것은 꼭 27日서부터 30日까지 아니고 했을 때는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하면 또 되는 案이기 때문에 어차피 案이 잡혀서 이미 여러 議員님 44名한테 通報된 事項이니 이대로 좀 進行을 했으면 하는 것이 幹事의 立場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充分히 尊重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事例가 없도록 했으면 어떤가 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案입니다.

날짜도 4日로 잡혔지마는 이틀로 잡을 수도 있고 4日로 더 늦출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案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서 한번 기탄없는 이런 意見이 討論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榮植委員 그런데 지금 幹事님이 案이라고 했는데 議長님이 召集公告를 하고 저희 召集한다고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確定이죠 이게. 사실상 우리한테 추인받은 것이지.

○委員長 金炯九 예. 27日날은 確定된 거죠.

○金榮植委員 確定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幹事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差異가 있는 것 같아요.

○趙基燦委員 지금 林係長님이나 委員長님, 幹事님 말씀이 전면 論據에 矛盾이 있다, 이미 議事日程을 確定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現在 事後에 추인하는 것이지 會議입니까?

자체적인 會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0日날 27日날로 公告를 딱 해놓고 있는 우리가 와서 우리 이렇게 해왔으니까 도장 찍어달라 이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무슨 運營委員으로서 主體性이 있습니까?

대단히, 심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運營委員으로서 상당히, 問題가 상당히 深刻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運營委員會가 있다고 하면은 區廳長이 時急한 事項이 있다 하더라도 그 日字를 勘案해서 議員들이 海外研修하고 오늘 充分한 期日이 있으니까 事前에 協議를 해서 해야지 議長과 團體長이 合意해 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合議해 왔으니까 무조건 따라오라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林係長님이 무슨 地方自治法 39條 準用을 하셨는데 法에 앞서서 基本的으로 運營委員會가 獨自의으로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하고 자기가 해야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團體長이 要求하니까 議長이 동의해서 자기들끼리 정해 놓고 우리보고 도장 찍어라, 과연 우리 議會는 그러면 完全히 이렇게 區廳이나 委員長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들러리로 따라다니라는 얘깁니까?

그래서 不當하다는 얘기입니다 議會가.

모든 것이 順序가 있고 節次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그만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措置하겠습니다.

理解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현재 時間때문에 또한 區廳長님이나 또 여러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議長님이 決定을 하셔서 저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니까 理解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進行을 안하겠습니다.

이제 두분 理解하시죠?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植委員 理解하는 것이 아니라 參席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理解가 안되죠.

○委員長 金炯九 27日 하루만요?

○金榮植委員 그렇죠, 理解가 안되죠.

參席하지 말라 하던지요. 쉽게 얘기해서.

○委員長 金炯九 이미 公告가 됐으니까 할 수 없죠.

○金榮植委員 글썽말입니다. 그건 안되죠?

○委員長 金炯九 예. 方法이 없지 않습니까?

○金榮植委員 方法이 없단뇨?

○申宗鉉委員 저도 發言있습니다.

申宗鉉委員입니다.

趙基燦委員님과 金榮植委員님이 너무 妥當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議題를 내거는 過程에서 天災地變이라든지 여러가지 狀況이 急變하는 問題가 있다라고 한다면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번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을 내다봐야 되고 未來志向의인 關係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에 너무나 졸렬한 會議의 矛盾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특히나 또 그런가 하면 委員長님과 幹事님 말씀도 묘한데가 있습니다.

어떤 묘한데가 있나면 지금 이것은 案이라고 했는데 公告를 해놓고 案이라고 하면 우리 運營委員과 議長間에 서로 상호 여러가지 좋지 않는 問題도 나올 것이고 또 그런가하면 議長은 우리 44名을 代表하고 우리 議會를 代表하는 議長인데, 議長께서 公告를 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延期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問題가 나왔을 때는 이번 처음이니까 다시는 없다고 하지마는 첫발을 잘 내디디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運營委員會가 처음서부터 질벽질벽 한다는 關係는 여러 委員님이나 委員長님께서도 여러가지 생각은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運營委員會는 앞으로도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付言드려서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우리가 이번을 契機로 해서 自省하고 反省할 수 있는 이러한 體制가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趙基燦委員님과 金榮植委員님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

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올바르게 가야하겠다고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議事係長 林洛吉 議事係長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議事日程案이라 해서 委員님들에게 配付해 드린 油印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議事日程案이나 아니냐 하는 問題도 舉論을 하시는데 저희 事務局 立場은 그렇습니다.

本會議의 開議日時, 最初로 첫날 開議하는 날짜나 時間에 대한 開議日時は 議長님에게 權限이 있다고 判斷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 地方自治法이 그렇게 規定하고 있는 것은 委員會制度가 생기기 以前부터 活用되었던 地方自治法인데 지금 우리 議會에도 運營委員會制度가 있어서 運營委員會가 構成이 되었기 때문에 議長으로서도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議長님에게 開議日時를 公告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議事日程案은 27일부터 會議을 하되 날짜는 몇일간 할 것이며 그 동안의 議事日程으로 休會는 언제 하고 또는 委員會 活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事項을 議論해 주시는 것이 議事日程에 대한 論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月27日, 내일 午前 10時로 開議公告된 事項에 대해서는 節次上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判斷하지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運營委員會가 있기 때문에 運營委員會의 事前 議決을 거쳤다면 더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側面으로 理解를 하면서 앞으로 事務局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 委員님들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炯九 자 우리 委員님들 理解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金榮植委員 時間을 좀 調整할 수가 없을까요?

○委員長 金炯九 몇時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金榮植委員 午後 3時쯤.

○委員長 金炯九 이미 公告가 나가서 贊成을까요, 時間이 내일인데 時間이 안되지 않겠어요? 이미 公告가 됐는데 다 보냈거든요.

○金榮植委員 다시 連絡을 하더라도,

○李天浩委員 그러면 4時에 時間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例를 들어서 時間이 公告가 됐으면은 4時에 時間이 있는 것을 갖다가 4時 午前으로 옮기고 아침에 나와야 할 議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4名이 고루 지금 意見을 맞추기에는 이미 時間이 촉박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金榮植委員님이 10時에 時間이 없는 것처럼 4時에 時間이 없을 사람도...

○金榮植委員 제 얘기는 이것이 우리가 正常的으로 事前에 알았으면 될텐데 正常的의 아니니까 내 얘기에요.

한 두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솔직한 얘긴데.

한 두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얘가지 저 혼자 같으면 뭐하러 運營委員會에서 이렇게 자꾸 열을 올려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가지.

○委員長 金炯九 그런데 金榮植委員님, 이미 公告가 나갔고 또 각 議員님 앞으로 다 배달이 됐거든요 지금.

○李天浩委員 내일은 그리고 뭐 큰 重要한 會議가 없고 이제 會議日程만 잡고 끝나는 거니까.

○委員長 金炯九 내일 간단히 끝나면 되거든요.

바로 提案說明만 듣고 끝낼거란 말이에요.

○安敦洙委員 議決할 事項이 없고 내일 日程만 論議하면 끝나니까.

○委員長 金炯九 잠깐 왔다 가시면 되지 않아요?

○趙基燦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日程을 잡을 적에 서로 協議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一方的으로 잡아서, 사실 저희들 내일 重要한 무엇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炯九 그게 몇時입니까?

○趙基燦委員 11時거든요.

○委員長 金炯九 그러면 그냥 오셨다가 잠

간 얘기 듣고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장소가 어디쯤인지 11시면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朴演洙委員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일단 오셨다가 바로 나가시면,

○韓春子委員 지금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여기가 아무리 基礎議會가 黨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 民主黨議員님들이 다같이 무슨 모임이 있으신가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지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좀 우리 위원님 2분께서 代表로 우리 區議員들한테 諒解를 좀 얻어주시고 내일은 오셨다가 얼굴만 아침 일찍 보이실 수 있으면 보이시고 가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李天浩委員 日程때문에 얘기니까 내일도 그렇게 會議을 進行해 달라고 議長한테 얘기하면 될거예요.

○韓春子委員 그리고 重要的 案件은 여러 위원님들 다 제실때 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만, 여기 特委構成하는 이런 日程잡는 것 뿐이기 때문에 좀 諒解를 해 주시고 가셔서 또 議員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겠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나간거니까 10시에 하는 걸로.

○金榮植委員 委員長님, 내일 그러면 말입니다. 開會式만 하고

○委員長 金炯九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植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委員長 金炯九 예, 異議가 없으시면 第18回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臨時會 議事日程 審査의 件은 會期를 27일부터 30일까지 4日間으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2年第2回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審査를 위한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委員長提議)

(16時32分)

○委員長 金炯九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1992年 第2回 一般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 審査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第1回 追加豫算案審査때

構成했던 것과 같이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도 15名으로 構成하고, 構成方法은 전과 같이 各 委員會別로 5名씩 推薦을 받아 選任코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金榮植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植委員 저는 지난번 追更豫算 다룬 그분들이 했으면 안 좋겠나, 이게 더 重要的 것도 아니고 얼마 안되는 豫算이니까 지난 追更豫算했던 분이 수고를 더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委員長 金炯九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5名으로 構成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정도만 消耗하면 되니까.

(「委員長님!」하는 이 있음)

예, 趙基燦委員님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그 지난번에 豫決委에 參與했던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實質으로 各 常任委의 特性을 살려서 常任委에 委任하는 것이 原則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各 常任委에 一任을 해서 지난번에 審査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다시 選任하든가 해서 常任委員會에 一任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炯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常任委員會에다 一任을 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異議가 없으시면 豫算決算委員會 構成의 件은 各 委員會別로 5名씩 해서 15名으로 構成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議事日程 論議가 끝났으므로 第17回 서울特別市 城北區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36分 散會)

○出席委員

金炯九 申晉玉 朴演洙
金榮植 金承泰 申宗鉉

安傑瑤
韓春子

李天浩
徐海善

趙基燦

○缺席委員

徐化錫

李萬載

安敦洙